

조선어와 로어에서 분리구조의 쓰임에 대한 대비분석

리 원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이지)

외국어교육에서 해당 외국어의 특성을 모국어와의 대비속에서 습득시키는것은 류사한 언어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어와 로어에서는 다같이 분리구조라는 진술구조가 널리 쓰이고있다.

분리구조는 말그대로 진술에서 일정한 성분을 분리시켜 사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분리구조에는 분리된 성분이 있게 되며 그것을 제시성분이라고 한다. 조선어에서는 제시성분을 보임말이라고도 한다.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은 진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한 문장성분을 강조할 목적으로 떼내어 따로 제시하는 성분이다. 따라서 분리구조를 일명 제시구조라고도 한다.

조선어: 《영희. 그 동무는 공부를 잘해.》

로어: Дождь. Дождя давно не было. (비. 비는 내리지 않은지 오래다.)

조선어와 로어의 분리구조에는 일반적으로 제시성분과 함께 그와 의미적련관관계를 가진 상관성분이 있게 된다. 조선어에서는 상관성분을 받는 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어: 《공부. 그게 동무한테 제일 중요한거요.》

《애야. 그걸 좀 주렴. 내 옷말이야.》

로어: Наш сосед. Он каждый год в Москву ездит.(우리 옆집사람. 그 사람은 해마다 모스크바에 가곤 해.)

Она на работе. Галя. (그녀는 직장에 나갔어요. 갈라말이에요.)

조선어실례에서 상관성분은 《그게》와 《그걸》이며 로어실례에서는 인칭대명사 он과 она이다.

로어에서 상관성분으로는 주로 대명사(대명사적상관성분)가 많이 리용되며 제시성분과 동일한 명사(명사적상관성분)도 리용될수 있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반대로 명사적상관성분이 많이 리용된다. 이것은 대명사를 많이 쓰는 로어와 달리 조선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명사보다 명사를 많이 쓰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분리구조의 상관성분을 번역할 때에도 로어와 조선어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조선어의 명사적상관성분을 로어의 대명사로, 로어의 대명사적상관성분을 조선어의 명사로 번역하는것이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는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것이다.

조-로번역: 《평양. 나는 평양을 사랑한다.》 (Пхеньян. Я люблю его.)

《영호. 영호를 잊지 맙시다.》 (Ен Хо. Его не забудем.)

로-조번역: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а четырнадцатый автобус, он налево повернет?
(여보시오, 14번버스, 그 버스가 왼쪽으로 꺾어듭니까?)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은 일반적으로 진술의 앞이나 뒤에 놓인다.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은 우선 진술의 기본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맨앞에 놓일 수 있다.

조선어에서 이러한 제시성분은 주로 절대격형태를 취한다. 입말에서는 절대격형태가 《...말이요, ...말이야, ...말이다》, 《있지 않소, 있지 않니》 등과 같은 강조표현과 함께 리용되기도 한다.

《당보. 당보는 당의 목소리요.》

《김동무말이요(김동무 있지 않소). 그 친구 뽀을 잘 차던데.》

로어에서 진술의 앞에 놓이면서 기본문제점을 강조하는 제시성분은 보통 주격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주격을 주제주격이라고 한다.

Мой друг. Он каждый день в футбол играет. (내 친구. 그 사람은 매일 축구를 해.)

이 경우에 상관성분은 일반적으로 제시성분의 뒤에 인차 놓이면서 억양에 의해 분리된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중요한 말을 먼저 제시성분으로 제시한 다음 계속하여 말하려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색할 여유를 얻는것과 관련된다.

상관성분이 주격이 아니라 다른 격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억양상으로 더 강하게 분리된다.

조선어: 《애야, 모자/ 모자를 쓰고 가거라.》

《신문/ 그걸 매일 읽어야 하는거요.》

로어: Моя сестра/ у нее уже двое детей.(나의 누나말이야/ 그에겐 벌써 아이가 둘이야.)

Лес/ до него минут двадцать идти.(수림/ 거기까진 한 20분 가야 해.)

제시성분이 진술의 앞에 놓이는 경우에 대명사가 상관성분으로 되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질적평가의 의미를 표현할수 있다.

실례로, 로어에서 문장 Чай кипит.(차가 끓는다.)에서는 사물현상을 지적하는 의미가 표현되지만 주제주격과 대명사적상관성분을 가진 진술인 Чай. Он бодрит.(차. 그것은 원기를 돋구어준다.)에서는 사물현상의 질적특성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실례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Маша. Она поговорить любит.(마샤. 그는 말하기를 좋아해.)

Словарная работа. Она очень трудная.(사전작업. 그건 아주 힘든 일이다.)

조선어에서도 《담배. 그건 건강에 해로운거요.》와 같은 진술의 경우에 사물현상의 질적특성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다.

로어는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언어이지만 조선어에서처럼 명사를 상관성분으로 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Морковь. Морковь очень полезная.(홍당무우. 홍당무우는 아주 좋은거야.)

Папа. Папа сейчас в больнице.(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입원중이야.)

이 경우에 명사적상관성분은 주로 주격형태에 놓이지만 사격형태에도 놓일수 있다.

Балет. Балета он не любит.(발레. 그는 발레를 좋아하지 않아.)

Книги. Книг у него навалом.(책. 책은 그 사람한테 얼마든지 있어.)

조선어에서 제시성분이 진술의 앞에 놓이는 분리구조는 대화의 받는 말이나 시작말로 다 같이 자유롭게 쓰이며 글말에서는 이러한 상관성분으로 진술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너 어제 뭘했니?》《숙제. 숙제 했어.》

《〈ㄷ.ㄷ〉의 기발. 그것은 혈전만리 피어린 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의 명맥을 꺾듯이 이어가며 가장 순결하게 휘날려온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그러나 로어에서는 이러한 분리구조가 대화에서 시작말로만 잘 쓰이지 않으며 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반응하는 받는 말에서 쓰인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말은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 Что-то пионов нет на рынке.

— Пионы. Пионов мало в этом году.

(《웬일인지 시장에 모란꽃이 없구만.》

《모란꽃말이지. 모란꽃이 올해엔 많지 않아.》)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은 또한 진술의 맨뒤에도 놓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로어에서 상관성분으로는 대명사만이 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리구조와 어휘적반복구조를 갈라보아야 한다.

실례로 Таня тебе звонила. Таня.(따냐가 너한테 전화를 걸어왔었어. 따냐가.)라는 문장에서 뒤에 놓인 Таня는 앞에서 쓰인 Таня에 대한 어휘적반복으로 된다.

그러나 분리구조에서 상관성분으로 리용되는 대명사는 어휘적반복이 아니며 뒤에서 이야기되게 될 제시성분(명사)을 암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말의 시작을 땔뿐이다. 암시적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대명사는 진술의 뒤에 놓이는 제시성분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 경우에 제시성분으로 리용되는 명사는 진술에 그 어떤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지 않으며 다만 대명사적상관성분의 내용을 구체화할뿐이다. 명사는 말하는 사람이 화제에 오른 대상이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구체화하여 정확히 알려주려는 목적에서 리용된다.

— Алло!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Нину?

— Она на работе. Нина.

(《여보시오! 니나를 좀 바꾸어줄수 있습니까?》《그는 직장에 나갔어요. 니나말이에요.》)

조선어에서도 암시적기능을 수행하는 대명사적상관성분이 진술의 뒤에 놓이는 제시성분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걸 좀 가져오너라. 책.》

《그게 너한테 있니? 책말이야.》

명사는 진술의 뒤에서 제시성분으로 리용되는 경우에 지시대명사의 규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선어: 《애야, 그걸 좀 주렴. 그 책말이야.》

로어: Она тебе очень идет. Эта жилетка. (그게 너한테 아주 어울린다. 그 조끼가.)

Он мне обещал написать. Этот мальчик. (그가 나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소. 그 소년이야.)

진술의 앞에 놓이는 대명사적상관성분을 구체화하는 제시성분(명사)은 그 상관성분과 나란히 놓일 수도 있다.

조선어: 《그저, 번역말입니다, 나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로어: Они, эти ребята, в нашей школе учатся. (그들은, 이 동무들말이야, 우리 학

교에서 공부하고있단다.)

Она, эта книга, мне интересной кажется.(이거, 이 책말이야, 재미가 있는것 같아.)

Он, этот парень, не любит меня.(그는, 그 젊은이말이요, 날 좋아하지 않소.)

대명사적상관성분이 진술의 앞에 놓이는 경우 그것을 구체화하는 제시성분(명사)은 대명사와 격에서 일치할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조선어에서는 이 경우에 대명사의 격형태에 관계없이 제시성분이 절대격형태로 리용될수도 있으며(《기다리자. 그는 온다면 오니까. 영철이말이야.》《너 그걸 꼭 가지고가거라. 그 책말이다.》) 대명사의 격에 해당한 격토와 함께 리용될수도 있다.(《난 그걸 벌써 몇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책을 말입니다.》《거기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공장에 말입니다.》)

그러나 로어에서는 이 경우에 제시성분과 대명사적상관성분이 반드시 격에서 일치한다. 이것은 명사가 진술의 앞에 놓이는 경우와 차이나는 점이다.

Я ее не выписываю. Эту газету.(난 그걸 신청하지 않아. 그 신문을 말이야.)

그러므로 앞에서 쓰인 대명사가 주격에 놓이지 않았다면 뒤에 놓이는 제시성분인 명사도 주격에 놓을수 없다. 다시말하여 Мне ее подарили недавно. Эта книга.(난 이걸 얼마전에 기념으로 받았어. 이 책말이야.)라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Мне ее подарили недавно. Эту книгу.라고 해야 하는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조선어와 로어에서 분리구조는 일반적으로 제시성분과 함께 상관성분을 포함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시성분만 있고 상관성분이 없는 분리구조들도 있다.

상관성분이 없는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은 억양상으로 분리되면서 흔히 문맥이나 상황에서 중요한것을 명명하거나 상기시키는 목적에서 리용된다.

조선어: 《약말이야. 자기 전에 잊지 말고 꼭 먹어야 해.》

《어머니. 네가 빨리 가서 모셔오너라.》

로어: Газета. Дай мне быстрее.(신문. 나에게 달라 빨리.)

Книга. Ты не забыл?(책. 너 잊지 않았니?)

앞에서 말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면서 제시성분인 명사가 진술의 마지막에 놓이는 경우에도 상관성분이 없는 분리구조가 쓰일수 있다.

조선어: 《나 대학에 가. 도서관.》

로어: В консерваторию мне надо. Большой зал.

(나 음악대학에 가야 해. 대강당말이야.)

이 경우에 진술의 마지막에 놓이는 제시성분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수도 있다.

조선어: 《어머니. 난 래일 대학에 나가야 해요. 강의해요.》

로어: Не смогу приехать завтра в институт. Командировка!

(래일 대학에 갈수 없소. 출장이요!)

이와 같이 로어와 조선어에서는 다같이 분리구조가 널리 쓰이고있으며 제시성분과 상관성분을 리용하는데서 공통점과 함께 일정한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교착어인 조선어에서는 명사와 대명사의 격의미들을 절대격형태로, 다시말하여 격토를 붙이지 않은 단어의 원형으로 거의나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으므로 제시성분의 형태를 선택하는데서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굴절어인 로어에서는 제시성분을 어떤 형태로 리용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로어의 명사나 대명사에서는 격형태들이 모두 개별적인 격의미를 표현하고있으며 조선어에서처럼 임의의 격의미를 표현할수 있는 절대격형태가 없다. 그리하여 로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명사나 대명사의 주격형태에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종합적언어인 로어의 격범주에서 분석적경향이 강화되고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로어에서 구체적인 형태변화를 하지 않고도 단어의 원형인 주격형태로 여러가지 격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것이다. 결국 주격의 기능이 확대된것으로 볼수 있다.

로어에서는 원래부터 명사의 주격이 술어로 널리 리용되어왔다.

Мои муж — химик. (나의 남편은 화학자이다.)

Наш сосед — учитель. (우리 옆집사람은 교원이다.)

주격의 이러한 쓰임에 기초하여 회화어에서는 술어로 쓰이는 명사가 주격형태를 취하지만 우의 실례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Он разве минский?

— Он Тарту.

(《그 사람이 정말 민스크사람이요?》)

(《그 사람은 파르투사람이요.》)

여기서 Тарту(파르투)는 고유명사로서 교장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주어-술어》관계에 따르는 고유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파르투》라는 지방이라는것을 나타내는 문장인것이다. 그러나 우의 문장에서 술어로 쓰인 Тарту(파르투)는 그 지방태생의 사람을 나타내었다.

다음의 실례에서도 술어로 쓰인 명사주격의 의미가 확대된것을 찾아볼수 있다.

— Он кто?

— Он музыкант. Он орган и рояль.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풍금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보는바와 같이 문맥밖에서라면 그 사람이 풍금과 피아노와 같은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Он орган и рояль.)이 문맥속에서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있다.

회화어에서 나타나는 명사주격의 기능확대현상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문장의 뒤에서 술어로 리용되는 주격형태는 일반적으로 억양상 강하게 분리된다. 따라서 Он музыкант.(그는 음악가입니다.)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억양상으로 강하게 분리되지 않지만 Он/ орган и рояль.(그는 풍금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에서는 억양분리가 강한것이다.

또한 문장의 뒤에서 술어로 리용되는 주격에서는 단순한 동일성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를 각이한 관계에서 규정하는 의미가 나타난다.

주어와 술어사이에 단순한 동일성관계가 나타난다면 Он орган и рояль.이나 Он второй этаж.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풍금이나 피아노 또는 2층이라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회화어에서 쓰이는 이러한 문장은 그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이라는것, 2층에 사는 사람이라는것과 같은 보다 복잡한 규정적의미를 담고있다. 주

어와 술어로 쓰이는 두개의 주격사이의 이러한 호상관계는 회화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것이다.

로어에서 주격의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은 주격이 술어적부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이는데서도 나타난다.

이 경우에 주격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에 놓이면서 억양상으로 술어와 분리된다.

— Как Ереван?

— Ереван/ замечательно.

(《예레반이 어때?》)

(《예레반은 멋있어.》)

술어가 앞에 놓이고 주어가 뒤에 놓이는 어순도 일부 나타난다.

Очень красиво Псков.(쁘쓰꼬브가 아주 아름답다.)

그리하여 주격은 надо, можно, нужно류형의 무인칭술어들이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쓰이고있다.

Мел нужно?(백묵이 필요합니까?)

А что мне еще надо? Сахар надо.(나한테 뭐가 또 필요할까? 사탕가루가 있어야지.)

Надо газета?(신문이 필요하오?)

이 경우에 주어와 술어가 두 단어로 이루어진다면 보통 억양상으로 분리되지만 주격과 술어적부사사이에 다른 단어들이 끼여들게 되면 억양상으로 분리되지 않을수도 있다.

Чай же вкусно!(차는 맛이 좋구만!)

Красная кофта тебе хорошо.(빨간색자케트가 너한테 좋구나.)

이러한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조사 это에 의해 련결되는 구조의 변종이라고 볼수 있다.

Ночь в поезде – это утомительно.(기차칸에서 밤을 새우는건 고달픈 노릇이다.)

Ветер – это холодно.(바람은 쌀쌀하다.)

이 경우에 명사주격이 문장의 뒤에 놓일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놓이는 술어가 통보의 기본내용을 표현하면서 강조되고 뒤에 놓이는 주어는 억양상으로 분리되면서 약화된다.

Это важно/ погода.(그건 중요해, 날씨.)

Это утомительно/ сидячий поезд.(그건 피곤해, 앉아서 가는 기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화어에서 주격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주격형태가 분리구조에서 제시성분으로 널리 쓰일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분리구조의 쓰임을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여 교수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로어교육의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쓸모있는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 분리구조